



그림 9-11.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주장한 에릭슨(Erik Erikson)

출처: https://upload.wikimedia.org/wikipedia/commons/1/19/Erik_Erikson.jpg

을 맞추고 있다.

심리사회성 이론은 전 생애를 구강기에서 노년기까지 8단계로 나누는 평생 발달에 관한 이론이다. 각 단계마다 개인은 위기를 맞이하며 대개는 긍정적 방향으로 발달·적응해 가지만, 이와 반대로 부적응과 부정적 방향으로 발달이 나타날 수도 있다.

(1) 기본적 신뢰감-불신감(출생 후~만 1세)

이 시기에 유아는 무능력한 존재로서 부모의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한다. 따라서 환경으로부터 모든 것을 끌어들이며, 어른들 특히 어머니의 보살핌 정도에 따라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,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된다. 만일 이 시기에 신뢰감이 형성되지 못하면 그 반대인 불신감이 쌓이게 된다. 유아기의 이러한 경험은 성장한 후의 성격 형

성에 그대로 영향을 주어 사회생활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기본적 신뢰감(trust) 혹은 불신감(mistrust)을 가지게 된다.

(2) 자율성-회의감(만 1~3세)

이 시기에는 신체운동 측면의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져 물건을 잡아 보고, 던져 보고, 또 결상 위에 올라가 떨어뜨려 보기도 한다. 즉 무엇이든 자율적(autonomy)으로 해 보려는 행동 경향이 나타나고, 자신의 새로운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난다. 그러나 이러한 자율적인 시도와 노력을 부모가 말리거나 과잉보호하며 대신해 주면 결국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감(shame/doubt)이 생겨나게 된다.

(3) 주도성-죄의식(만 3~5세)

유아원 혹은 유치원에 다닐 정도의 연령인 이 시기에는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이웃에도 돌아다니며 대인관계를 맺는다. 또한 또래 아이들과의 놀이에서 주도권(initiative)을 가지고, 언어 능력도 많이 향상되며, 위험한 장난, 환상적인 놀이, 대답해 주기 어려운 질문 등을 한다. 이 시기의 특징은 환경에 대한 침투이다. 따라서 사실상 일을 많이 저지르고 어른들을 귀찮게 만드는 시기이다. 그러나 이때 아이의 행동이 나쁘고 성가시다고 물리